

성진학교 설립, 시의회 교육위 통과 통학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기대

서울시교육청, 12일 본회의 의결
총 22학급 규모, 2029년 개교 목표
정근식 “차별없는 교육 지지 부탁”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9일 ‘(가칭)성진학교 신설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진학교 설립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지체장애 특수학교의 지역별 균형 배치가 이뤄져 특수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안건은 오는 1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본회의 의결 이후 본격적인 설계와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성진학교는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성동구 성수공고 폐교 부지에 총 22학급(유2, 초6, 중6, 고6, 전공과2) 규모로 설립된다.

성진학교가 설립되는 성수공고 폐교 부지는 활용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성수공고 폐교 부지(1만 3800㎡)를 분할, 성진학교(8000㎡)와 지



지난달 27일 서울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성진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역사회 공동 활용 시설(5800㎡)로 나눠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수공고 폐교 부지 남측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재개발 구역에는 9400세대 이상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역구 의원인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성진학교의 안착과 지역 주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성수공고 부지의 복합 활용 방안, 즉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병행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제안에 대해 향후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와 교육 수요를 고려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과 연계, 학교 신설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등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뜻을 모아준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오는 본회의에서도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청과 시의회, 지역사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미래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41년’ 개포도서관 개축… 미래교육 거점으로

서울교육청, 도서관 중 최초 재건축
2028년 1월 완공…공영주차장 조성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1984년 개관 이후 40여 년 만에 개포도서관을 전면 개축한다. 연면적 1만2711㎡ 규모로 확장되는 신축 도서관은 시민 소통과 청소년 전용공간, 친환경 생태 기능을 아우르는 미래형 교육·문화 거점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구와 협력해 지하 3층~지상 4층, 연면적 1만2711.37㎡ 규모의 개포도서관을 건립한다고 9일 밝혔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28년 1월이다. 신



개포도서관 투시도. /서울시교육청

축 도서관에는 북카페, 어린이·청소년 자료실, 일반자료실, 멀티프로그램실, 강의실 등이 들어서며, 창의·융합형 메이커 교육, 디지털 체험, 친환경 생태 프로그램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총 218면 규모의 지하 공영주차

장이 함께 조성돼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성과 도서관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23개 도서관·평생학습관 가운데 최초로 추진되는 재건축 사례로, 향후 서울형 미래 공공도서관 모델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정근식 교육감은 “새로이 탄생할 개포도서관은 시민과 함께 지식을 창조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열린 교육·문화 거점이 될 것”이라며 “41년 만에 첫 삽을 뜨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아 강남구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의 바람을 실현하고 미래형 도서관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獨 드레스덴서 미래산업 협력 속도

이동환 시장, 글로벌 기업 등 찾아
반도체·바이오 글로벌 협력 논의

고양시가 유럽의 대표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인 ‘실리콘 작센(Silicon Saxony)’의 중심지 독일 드레스덴과 손잡고 글로벌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드레스덴을 방문해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산업 분야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과 투자·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행보는 고양경제자유구역과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에 맞춰 글로벌 첨단산업 생태계와 연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행보다.

이 시장은 먼저 세계적 바이오 분석기업 ‘리포타입(Lipotype GmbH)’을 찾아 지질 분석 기술의 상용화 및 정밀의료 솔루션 투자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어 드레스덴 시청에서 디르크 힐베르트 시장과 만나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과 산·학·연 협력 모델을 공유하며 양 도시 간 교류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교육청 9급 107명 합격… 평균 32.3세

지방공무원 9급 최종합격자 발표
여성 40.2%, 최고령 합격자 55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올해 지방공무원 9급 최종합격자 107명을 발표했다. 여성 합격자는 43명으로 전체의 40.2%였으며, 평균연령은 32.3세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07명 명단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시험에는 총 3152명이 지원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139명이 지난달 30일 면접을 거쳐 최종 107명으로 압축됐다.

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58명(장애인 7명·저소득층 2명 포함) ▲사서 6명(장애인 1명 포함) ▲공업 2명(일반기계) ▲시설관리 41명(국가유공자 6명 포함)이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32.3세로 지난해(31.4세)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여성합격자는 전체의 40.2%인 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여성 합격자 비율 62%(258명) 보다 낮아진 수치이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50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39세 40명(37.4%), 40~49세 12명(11.2%), 50세 이상 5명(4.7%) 순이었다. 최연소 합격자는 교육행정 직렬 2003년생(22세), 최고령 합격자는 같은 직렬 1970년생(55세)이다.

아울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교육행정(일반) 직렬에서 남성 6명이 추가 합격했다. 이 제도는 특정 성별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의 30% 미만일 때 해당 성별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인재들이 공직에 빠르게 적응해 서울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마지막 판자촌’ 백사마을, 명품단지 탈바꿈

오세훈 서울시장, 철거상황 점검
사회통합 상징 공간으로 ‘재탄생’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10시 서울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이에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 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한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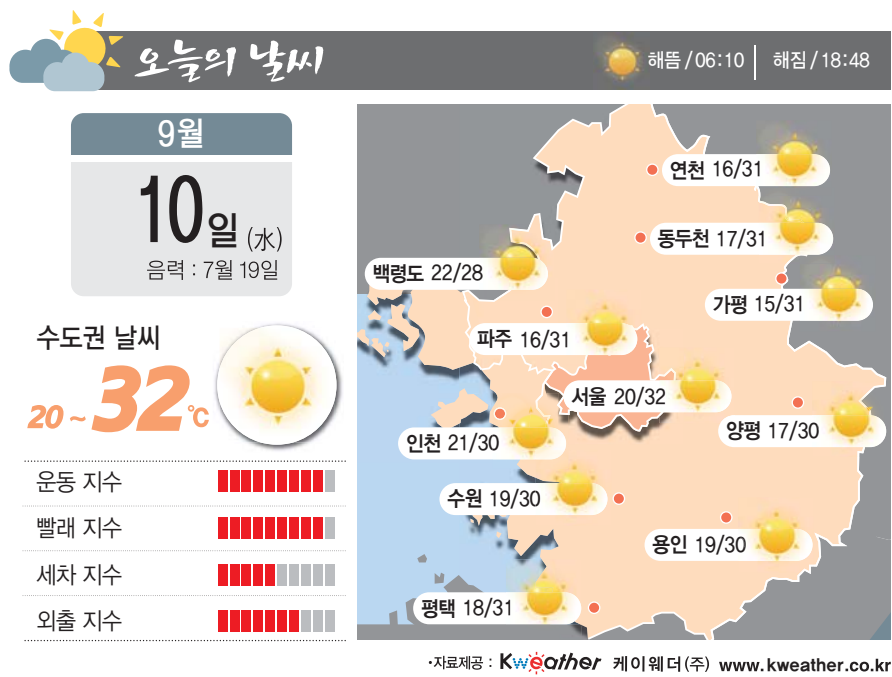
오세훈 서울시장 9일 오전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백사마을은 지난 8월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최고 35층, 공동주택 26개동, 3178세대(임대 565세대 포함) 규모의 명품단지 탈바꿈 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오세훈 시장은 “백사마을은 더 이상 달동네가 아닌 주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벽 없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상징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트럼프,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2심도 패소
…“1150억원 배상” /사진 뉴시스
▲美 8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3.2%로 ‘안정’
“고용 전망은 최악”

▲바닷속도 美-中 패권다툼…첨단 잠수함 경쟁
불붙는다
▲“日이시바, 유엔 총회 때 전후 80년 메시지 내
는 방안 부상”

▲이스라엘군 또 가자시티 고층빌딩 폭격, 폐허로
…정전협상은 계속
▲그리스 에비아 섬에서 규모 5.2 지진 발생, 아
테네에서도 진동 느껴져